

중국, 원유 수입의존도 60% 상회

2012년 2억7100만톤 수입 사상최대 ... 수입원가 상승압력도 커져

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2013년에는 원유 수입의존도가 6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.

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, 중국의 2012년 원유 수입량은 사상 최대인 2억7100만톤으로 2011년에 비해 6.8% 증가했다.

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석유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원유 수입량이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.

2011년에는 원유 수입량 2억5378만톤, 원유 수입의존도 56.5%를 기록했으며, 석유 소비량은 46억톤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.

에너지 전문연구기관인 동방유기망(東方油氣網) 청루이핑(程瑞鋒) 분석가는 “2013년에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2억8500만톤에 달할 것”이라며 “원유 수입의존도도 60%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”고 주장했다.

Sinopec 차이시요(蔡希有) 부총재는 “최근 Sinopec의 외부 구매 원유비중이 80%를 넘어섰다”며 “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원유 수입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원가 상승압력도 커지고 있다.

중국의 원유 수입액은 2012년 2206억7000만달러로 2011년에 비해 12.1% 증가했다.

2013년에도 미국의 통화팽창 정책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중국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.

무역기업인 역무(易貿)그룹 중젠(鍾健) 부총재는 “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골드만 삭스나 메릴린치 등 국제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관심도를 상당히 높였다”며 “2013년에는 원유선물 가격이 크게 올라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일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1/11>